

UAE 의료관광시장 조사 및 시사점

두바이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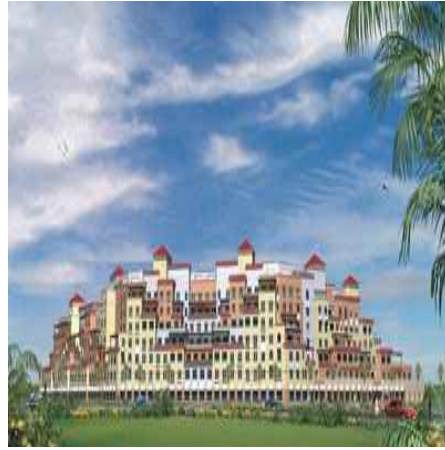
2014. 11. 4.

1 UAE 의료관광 현황 및 전망

- 대부분의 UAE 고소득층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 등으로 미국 및 유럽으로 의료관광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, UAE 정부는 의료시장 잠재성과 자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의료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에 집중
 - 2010년 80억 아랍에미리트 디르함(USD22억불) 투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배 이상을 투자할 예정
 - RNCOS(시장·산업 리서치社)에 따르면 2011~2014년 연평균 성장률은 16%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, 2014년에는 의료 시장 규모는 1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
- UAE 정부는 의료산업 개발 계획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관광부문과 결부시키고 있으며, 두바이는 '20년까지 중동지역 의료관광 허브로 부상하고자하는 목표를 수립
 - 세계 관광순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면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한 UAE-두바이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관광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는 상태
 - 편리한 항공편, 공항규모, 호텔, 볼거리 등 관광 인프라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관광 인프라가 지속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·유럽과 다르게 의료관광 비자 발급의 용이성이 결부되어 두바이 방문 환자 및 가족에게 큰 매력요소로 작용

- 이미 Dubai HealthCare City(DHCC)라는 세계 최초의 의료산업 프리존을 건설해 해외 유수의 병원 유치에 위해 법인세, 소득세 그리고 관세까지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중
 - DHCC는 의료 관리, 의료 교육 및 의료 연구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최고의 시설 및 기술센터를 지향
-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인력 및 시설기기를 구비 그리고 고급 이미지 덕분에 현재는 자국민의 발걸음을 국내 의료 병원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MENA, CIS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의 고소득층 환자들을 두바이로 유치
- 두바이 보건청은 2011년 기준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를 방문한 총 50만 명 중 15%가 해외 의료관광객으로, 2015년까지 방문객 수는 연평균 7.2%(2012~2015년)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DHCC는 기존에 보유한 의학기관 활용 및 신규 의학기관 개발을 통해 현지의 의료인력 양성을 계획중
 - 현재 DHCC는 Mohammed Bin Rashid Academic Medical Centre, Al Maktoum Medical Library 및 Khalaf Ahmad Al Habtoor Medical Simulation Centre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 기관은 두바이가 중동지역 의료산업 중심지가 되겠다는 두바이 통치자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
 - 이와 더불어 DHCC는 23층 규모, 400개의 침대를 보유한 대학병원을 건설할 예정
- DHCC의 이러한 모든 계획을 포함한 2기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, 이 공사는 기존에 완공된 1기 공사의 4배 이상 규모가 될 전망
 - 2기 공사가 완공될 경우 DHCC는 총 6개의 분야별 구역(Clinical Zone, Healthcare Mixed Use, Long-Term Care, Spa Resorts, Canal Residence 및 Town Centre & Clinical Villa)로 구성

Dubai Health Care City(DHCC) 전경



2 두바이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 등

- '14년 3월 두바이 보건청(DHA)은 2020년까지 연간 5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의료관광 중장기 전략을 발표
 - '12년에 10.7만명(1.8억불 수입)에서 '16년 17만명, '20년 5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연간 7억불의 수입을 목표
 - 이를 위해, CIS, 남아시아, GCC 국가 등을 타겟으로 7개 진료 과목(정형, 성형, 안과, 치과, 피부과, 건강검진, 피부관리)에 특화할 계획
 - 두바이는 중동 허브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 의료관광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
 - 현재 2,518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, 18개를 추가 건설중에 있고, 그 중 70%이상이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
 - 관광, 물류, 전시 등의 허브 기능과 연계, 금년말까지 진료비·비자·항공료·동반가족의 관광 등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일 계획

□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두바이 정부의 12개년 계획을 발표

- '14년 5월 두바이 보건청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30억 디람(약 8억 달러)을 투자해 국립병원인 Rashid Hospital의 리모델링과 3개의 신규 병원 및 40개의 건강센터를 개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
 - 응급환자 및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Rashid Hospital은 리모델링을 통해 4~5성급 호텔과 직원용 아파트 및 단독 주택, 무슬림 사원인 모스크를 건설할 예정
 - 또한, 300개의 침대를 보유한 3개의 타워 신축과 기존에 보유한 외과 병동도 향후 2년 내 116개의 침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확장 예정
 - 두바이 보건청은 두바이 거주민뿐 아니라 두바이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모두에게 최신식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, 동계획이 완성될 경우 환자 및 가족, 병원 직원 및 의료관광객 등 내외부 고객 모두의 요청사항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

□ UAE 보건부는 2015년까지 UAE 정부가 의료분야에 400억 디람(약 109억 달러)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

- 두바이 보건부는 이 예산으로 두바이 북부에 있는 토후국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로 활용할 예정이며 일반 병원, 응급치료센터, 치과, 의학실험실, 혈액은행 등 인프라 건설에 초점
 - 이 예산은 UAE 보건부, 아부다비 보건청 및 두바이 보건청에 대한 예산 배정과 민간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
 -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UAE 대형 병원이 의사 및 행정직원 모집을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함

3 UAE내 한국 의료의 위상

- UAE 국민의 한국 의료관광 증가 추세와 더불어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바탕으로 두바이를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UAE의 첫 프로젝트에 한국 의료진이 대거 투입됨.
 - 2009년 17명이었던 UAE의 한국 의료 관광객이 2013년 기준 1,151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임.
 -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미국·유럽에 비해 저렴한 의료비용이 주요인
- 또한, 그간 아부다비 보건청에서 송출한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환자 중심 병원문화를 접하면서 UAE 국민의 신뢰가 쌓여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
 -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Meydan과 Mir Hashem Khoory(MHK)이 공동 진행하는 약 AED 6억규모의 병원을 2015년 완공할 계획.
 - 해당 병원에는 한국 의료기기와 기술뿐만 아니라 고급 의료기술 제공을 위한 300여 명의 한국 의료진이 투입될 예정
- 보건복지부는 MOU 공식 체결을 통해 환자 송출, U-헬스케어(Ubiquitous Healthcare) 등 UAE에 보건의료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
 - 보건산업진흥원과 UAE군의 MOU 공식 체결(2013. 4. 12)로 연간 UAE 통합군의 군 병원 환자 800여 명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등 연간 최대 456억원 수준의 진료수입을 기대

- UAE군 안에 U-헬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
 - MOU 체결 전부터 UAE 보건부는 이미 880억 원 규모인 ‘의료정보 시스템 현대화 사업’의 일환으로 U-헬스 기반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, 글로벌 U-헬스 시스템 등 국내의 U-헬스산업을 수입
- Ishaq Saleh Al-Baloshi UAE 합동군사령관은 한국과의 보건 의료 협력 확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으며,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
 -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UAE군 환자 송출계약 체결이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제2의 중동 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힘

4 시사점

-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UAE 의료관광시장이 앞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나, 보완점은 여전히 산재함
 - 딜로이트 의료 컨설팅 이사인 Parham Gohari는 "두바이의 광대한 인프라 그리고 고급 이미지가 도움이 될지라도,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점점이 시급하다"고 밝힘
 - 특히, 각종 전문가들은 UAE 내 의료시설 및 교육 수준이 미흡해 고급 전문인력 양성이 더디므로 늘어나는 환자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힘들다고 언급
-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UAE 의료관광산업 약점에 주안점을 두어 한국 의료 전문인력의 높은 수준을 끊임없이 홍보하면서 인재를 수출하고,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학 교육분야 교류 등을 통해 건설적인 관계를 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
 - 병원 수출 프로젝트, 민관협력,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이미 UAE 내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한 일정 신뢰도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진출을 타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

- 두바이는 의료산업 개발을 급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
국내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
- 인프라 건설 및 제품 수출 이외에도 의사, 간호사 등 의료분야
종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지 의료분야 구인
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요구